

박찬일 '밥 먹고 합시다'



두부의 맛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백석(1912-1996)의 시다. 국수라는 제목을 모른다면 두부를 묘사한 것이라 해도 될 듯하다.

두부는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각기 다른 포지션을 갖는다. 순두부는 갓 영기어 몽글몽글한 어린 식감이 우리를 끌어들이고, 모두부는 형태를 갖추었으나 쉬이 부서지며 제 맛을 한껏 표현한다.

이다. 비지가 비지다운 것은 다 짜내어서 버려질 운명에서조차 다시 거칠게나마 두부의 일파를 선언하는 기가다.

옛날 두부장수는 종을 치거나 나팔을 불어 손님을 불렀다. 덩그렁거리는 그 청동 종소리는 묵직하고 여운이 길었다.

요즘도 두부를 손수 만드는 식당이 더러 있다. 보통은 교외에 너른 마당이 있는 집에서 그리 한다.

내력 있는 집에서 할머니의 내림으로 전해지는 전통음식이기도 하다. 전라도에서는 물과 콩이 좋기로 소문나서 두부가 좋았다.

요즘은 이런 민족의 두부가 거의 사라지고, 마트에서 고만고만한 두부를 팔고 산다. 두부는 갓 만든 시간의 작품이다.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김재봉 광주신세계간과 원장

겨울 불청객 안구건조증

자가면역 질환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눈물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눈깜박임 이상을 일으켜 안구가 건조해질 수 있다.

안구건조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눈꺼풀 염증이 경우가 많다. 미세먼지, 꽃가루 등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바이러스 등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

눈꺼풀 염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안구건조증과 염증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안구건조증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는 '리피뷰'(Lipiview)와 '리피플로우'(Lipiflow) 장비 등이 효율적이다.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리피뷰는 눈물막의 지방

층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장비로 눈물막 지방층의 두께, 불완전 눈 깜빡임, 마이봄샘의 구조를 정밀검사해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파악한다.

생활속에서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알면 많은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눈 마사지'이다.

기고

광주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 장록습지

상자가 발생하자 외신에서 한국 기후상황을 조명했다. 한국은 여름 장마철에 정기적으로 홍수 피해를 입지만 대비가 잘되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기상현상이 더욱 극단적이고 빈번해져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가 극한 기상현상을 가속화하여 동아시아 전역에서 폭우로 인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올해 여름 세계 날씨는 하늘에 구름만 듯 폭우와 폭염으로 극과 극을 보였다.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평양 바닷물이 통째로 뜨거워지는 엘니뇨가 나타나 지구촌 곳곳이 이상폭염으로 고통받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폭우가 전세계를 강타한 이유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때문이다. 비의 강도와 강수량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비구름의 씨앗인 '수증기'인데,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지난 7월말 UN 구테루스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열대화 시대가 왔다"고 발표했으며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1월 "지난해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2.2ppm 증가한 417.9ppm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과학계가 수십 년간 경고하고 수백회 국제기후회의가 열렸지만 세계는 여전히 잘못된 방

향으로 가고 있어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중이 이상현상을 제거할 '마법의 지팡이'는 없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노력도 있지만 이제는 광주만의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광주형 기후위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광주와 자랑이자 상징인 국립공원 무등산 녹지공간을 다양한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게 필요하다.

향로강 장록습지는 국내 26번째 도심속 국가습지로 지정됐는데, 수많은 동식물의 소중한 삶터이자 지속가능한 광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아주 중요한 생태자원이다.

향후 광주공항 이전 시 현재 부지에 100만평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구하도 습지를 복원, 장록습지와 연계함으로써 영산강과 영산강 대상공원, 주변습지를 활용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안정된 도시 생태숲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실현되길 기대한다.

社說

전남 시군 인구늘리기 정책 성과 보인다

전남은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에서 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수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0.5 미만 지역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부른다.

전남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0만4875명으로 1년 만에 0.7%인 1만3609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493명에서 7391명으로 1년 사이 100명 넘게 감소했다.

회순, 강진, 나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9개 시군은 올해들어 신생아가 지난해보다 두자릿 수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44명으로 1년 만에 70%인 59명이 늘었다. 생후 84개월까지 최고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월 1만원에 리모델링 된 집에서 살 수 있는 '만원 리모델링 빈집' 제도 효과가 크다.

전남 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나왔다. 대도시인 인천시가 애를 낳으면 18세까지 1억 원을 준다는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을 내놓아 재정이 약한 전남 자치단체들 입장에선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해법 아니다

충남도의회가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폐지 조례안 발의에 가세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종교단체 등이 주도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의 주민조례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폐기 대상으로 주목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 제정·시행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동의절차(서명)는 내년 4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청구권자 총 수의 150분 1(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다.

데, 광주의 경우 민주·인권도시라는 상징성과 서울 등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이 주류여서 조례안으로 가시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며 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폐지안 발의 단체에 맞서 이정은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감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역시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 논란에도 분명한 것은 교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 탓만은 아니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無等鼓

SF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매트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택'이다. 라틴어의 어머니(Mater)와 자궁(-ix)의 합성어인 매트릭스(Matrix)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를 시작으로 주인공 네오는 모든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당연한 것이 아닌 남다른 선택을 하며 인류의 운명을 책임질 '그(the One)'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선택할 권리

천이 오히려 진정한 지방자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 당원들의 의견보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유권자가 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됐다.

선거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정당의 공정한 후보 선정, 대표의 선공후사 자세 등의 조건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시·군·구의 단체장·의원

에 대한 정당의 후보 공천이 오히려 진정한 지방자치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시·군·구의 단체장·의원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